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여성 기도회 : 10 월 18(수) – 19(목) : Spruce Lake Retreat Center, PA
- 교육부 광고
 1. 10 월 28 일 토요일 6:00pm 세광교회 annual Hallelujah Night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알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교육부에서 Canned Food Driv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마무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 주일예배 찬양팀 모집합니다. : 리더, 보컬, 악기, 악보
- 친교 후 운영 위원회로 모입니다.

2017 년 10 월 안내 : 전 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 김 동수 집사 / 시편 23 편

이번 주 친교 : 한 주루 권사 / 오 영숙 집사

다음 주 친교 : 변 숙영 집사 / 홍 영순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1 호

2017 년 10 월 08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0 월 08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67 장(통 31 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9 편	기 세학 집사
찬양(Choir)	"은혜의 자리"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하(2Sam) 7:1-17	인도자
설교 (Sermon)	"하나님이 택한 왕"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80 장(통 101 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9. 24. 주일 설교 요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2): 왕이 없다고 (룻 1:16-17; 2:11-12; 3:8-10; 4:9-12)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점점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사들이 굉장한 일을 하는 영웅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과부와 이방 여자 등 보통 이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왕이 없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룻기는 가뭄에서 풍년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남편과 자식을 잃는 이야기에서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해서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납니다. 사사들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 작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놀라운 승리와 기적도 어둠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아픔이 오히려 길이 되었을까요?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겨우 숨이 쉬어질만큼 얻은 은총이 실은 여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었습니. 오랜 기간 끝에 양식을 주신 것은(1:6)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던 하나님의 권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보셨다"는 표현은 실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가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고 있었던 은혜, 그러나 여전했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룻의 발길은 "우연히"(2:3)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같지만 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예수를 보내시려는 놀라운 계획 속에 이뤄진 일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곡식 다밭에서 조금씩 뽑아.. [룻]에게 줘게 하"라고(3:16) 한 은혜는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통로였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된 것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작은 은혜들에 감사할 때 그 뒤에 계신 은혜의 손길이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여전하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든든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한 것처럼, 어렵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인자와 사랑이 여전했습니다. 왕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양식과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남은(1:3, 5)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남겨두신 그루터기였습니다. 어머니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붙좃는 룻의 신실함(1:16)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을 지켜준 보아스의 신사대움과 관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닮았습니다.

왕이 없다고 조건에 옳은대로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나도 악해도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므로 그 앞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악한 자에게 재산과 건강과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낮이 가까운 줄 알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갑니다. 교회의 빛으로 세상을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눈에 띄는 법이라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어둠 속에 숨지 않고 눈을 들어보면 수많은 등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환한 빛으로 오실 때 어둔 자리에 있다가 부끄럽게 맞지 않고 기쁨으로 맞는 자리게 서게 됩니다.